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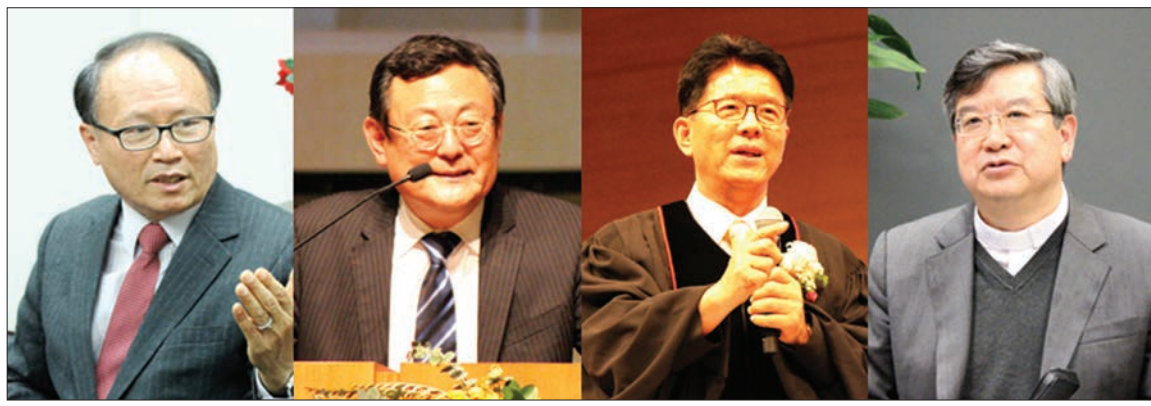
코로나로 불안한 사회, 그리스도 사랑 전할 때

캘리포니아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남가주 한인교회들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확산 방지와 개인위생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역 목회자들은 '현 상황에서 교회 모임을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는 다소 견해를 보였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정부의 권고 사항을 준수하겠다는 방침에는 모두 동의했다. 또 사회가 어렵고 혼란할수록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풀러신학교 박기호 교수는 "무엇보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모든 상황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며 긍휼을 구해야 한다"며 "교회가 더욱 기도에 힘쓰며 이웃을 돌아보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코로나 바이러스나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가 멈춰서



좌부터 풀러신학교 박기호 교수, 충현선교교회 민종기 목사, 주님의영광교회 신승훈 목사, 기쁜우리교회 김경진 목사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정부 권고 사항 준수할 것 예배나 일상생활하지 못할 상황 아니다 더욱 기도에 힘쓰며 이웃 돌아보는 기간 돼야

는 안 된다. 그러나 전통적인 생각에 갇혀 맹목적인 신앙으로 '반드시 교회에서 주일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는 반대한다"며 "정부의 권고사항을 수용하며 개인과 공동체의 위생을 철저히 지키는다면 이

또한 지나가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마스크, 손 세정제, 화장지, 물 등이 동이 나는 등 이기심이 고개를 들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하는 시대에 '그리

스도인이라면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면서 생필품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며 "교회가 세상을 쫓아 무조건 움츠러 들기보다는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충현선교교회 민종기 목사는 "교회는 인근에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 모든 공예배는 마지막까지 그대로 유지할 것이지만, 건강 및 위

생에 주의를 기울이며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나 어르신들의 경우는 모임을 연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 기간 서로 악수하지 않기, 비누 추가 배치, 손세정제 비치, 해외여행하신 분들의 2주간 자발적 격리, 예방 행동수칙 포스터 제작 등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위생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민종기 목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스나 메르스 보다는 사망률이 낮고, 사망자도 대부분 기저 질환으로 이미 고통을 당하는 고령층 어른들이 합병증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고령의 어르신들이나 다른 질환으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은 대중에 모이는 곳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며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권고 사항을 준수하며 추후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3면에 이어서 계속]

전미복음연맹(NAE) 대표로 한국계 월터 김 목사 공식 취임



NAE 새 대표로 선출된 월터 김 목사(가운데)가 NAE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NAE

한국계 월터 김(Walter Kim) 목사가 지난 4일 전미복음연맹(National Evangelical Alliance, NAE)

대표로 공식 취임했다.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캐피탈 턴어라운드(Capital Turn

around)에서 진행된 취임식에는 약 350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월터 김 신임 회장을 비롯해 존 젠킨스(John Jenkins) 이사장과 조 앤 라이언(Jo Anne Lyon) 부이사장도 새롭게 선출됐다.

월터 김 목사는 "누가복음 4장 14~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을 선택하셨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좋은 소식을 전하다'의 그리스어는 '에반젤리컬'(Evangelical)이라는 영어의 어원이 된다. 복음주의자들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셨을 때, 첫째로 복음

주의자(Evangelical)로 오신 것이다. 물론 그분은 단순히 복음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이었다"고 했다.

김 목사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갇힌 자들, 압제받는 자들에게 처음으로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이"이라며 1944년 NAE가 설립한 월드 릴리프(World Relief)를 언급했다. 또 "복음주의자들은 복음의 진리와 복음의 정의로서의 결혼에 있어서 오랫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왔다"고 전했다.

이어 "아브라함 링컨 전 대통령은 155년 전 이 자리에서 '모든 세대는 약함을 안고 있고, 모든 세대가 자

비를 필요로 한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 NAE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종주의에 대한 국가적 논의를 화해의 복음적 이야기로 바꾸어 온,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다. 링컨 대통령이 의미한 진정 정의롭고 지속되는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지난 15년 동안 보스턴의 파크스트리트교회를 섬기다, 현재는 버지니아 샬로츠빌에 소재한 트리니티 장로교회 담임을 맡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NAE 이사로서 활동해 왔다. 강혜진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지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 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CERTIFIED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월~금: 8AM~6PM, 토 8AM~4PM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 730-0112, (323) 735-3180

NEW COVENANT ACADEMY est. 1999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21st ANNIVERSARY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 킨더부터 12학년 WASC 인준 학교
- AP 및 IB 디플로마 프로그램 제공
- 100% UC 계열 대학 진학
- 졸업생 평균 SAT 점수 1390점
- 학업성과 전국 톱 10% 내
- CIF 스포츠팀 (농구, 배구 등)
-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교사진
- 저렴한 학비 및 보조금/장학금 제공
- 교사 대 학생 비율 11:1

Now Enrolling

(213) 487-5437 www.e-nca.org info@e-nca.org

미국, 지난 20년 간 실천적 기독교인 50% 감소

바나 그룹 “미국인의 영적 삶의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

바나 그룹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미국에서 실천적인 기독교인의 비율이 거의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미국 교회에서 기독교의 역할”을 조사한 이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의 25%만이 실천적인 기독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0년 조사 연구 결과 45%가 실천적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했던 비율에 비해 절반이 감소한 것이다.

바나 그룹은 ‘실천적인 기독교인’에 대해 지난 한달간 교회에 출석하고 기독교적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신앙이 삶에서 중요한 우선순위를 갖는다고 강하게 동의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00년에 비해 실천적 기독교인의 비율이 절반으로 감소했다.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지만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인

식하는 일명 ‘가나안 성도’의 비율은 지난 2000년 35%였지만 2020년에는 43%로 증가했다.

바나 그룹 대표 데이빗 কিন나만은 이번 조사 연구 결과에 대해 “미국인의 영적인 삶의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며 “20년 전 평균보다 헌신적인 교인의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 이 같은 변화는 적극적으로 교인들을 모으고 유지하려는 교회지도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최근 미국인의 영적·종교적 경향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조사 중 일부다. 이 보고서를 위해 바나 그룹은 지난 20년 간 96,171개의 설문 조사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검토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93년에 비해 2020년 매주 교회에 출석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6% 감소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은 지난 10년간 비슷했



©Unsplash

다. 1993년에는 미국 성인의 34%가 성경을 매주 읽는다고 응답했으며 2020년에는 35%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또한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여전히 기도를 매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 1996년부터 2010년까지 매주 기도한다고 응답한 미국인의 비

율은 약 83%였으며 통계적 차이가 거의 없었다.

킨나만 대표는 “미국인과 기독교 실천 간 본질에 교회 지도자에게 긴급한 질문을 제기한다”며 “미국인의 교회 활동, 성경 읽기 및 기도는 어떻게 재정의되는가?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 중 하나는 기도와 성경

읽기와 같은 개인적인 신앙 실천을 한다고 대답한 비율은 교회 출석률처럼 급격하게 감소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독교 활동을 지속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4분의 1과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관련성을 가질 수 있는가? 가장 보편적인 영적 활동인 기도가 어떤 식으로 이사회에서 영적 리뉴얼을 가져올 수 있는가?”라며 교회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제기했다.

CP는 5천명이 이상의 교인이 출석하는 뉴저지 주 팔시파니에 위치한 리퀴드 교회의 팀 루카스 목사의 발언을 인용, 밀레니얼 세대와 복음 전파에 대해 “메시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며 “메시지를 변경하지는 않지만 방법을 변경해야 한다. 은혜의 복음은 영원하지만, 다음 세대에 대해 큰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고 보도했다.

이미경 기자

美 UMC 분립 계획안, 미시간 특별회의서 압도적 찬성



지난 2019년 2월 24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아메리카 센터에서 열린 특별 회의의 모습. ©미연합감리회

미국 연합감리교(UMC) 미시간 연차 회의에서 오랜 기간 논의된 동성애 문제로 인한 교단 분립 안건을 UMC 사법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10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알비온의 굿리치 채플에서 7일 열린 특별회의는 ‘분리를 통한 화

해와 은혜의 프로토콜’ 계획안 지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열렸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새로운 분파를 꾸릴 보수 성향의 교회들은 교회 건물 등 교단 자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향후 4년 동안 2,500만 달러(약 290억 원)를 받게 된다. 이 계획안은 지난 1월부터 논의되

기 시작했다. 총대들은 이 계획안 제출 안건에 927 대 92로 압도적인 찬성표를 보였다.

하지만 분립 안건이 미시간 특별 회의에서 공식승인 된 것은 아니다. 특별 회의에서 총대들이 찬성표를 던진 분리 계획안은 오는 5월 미네아폴리스주 미네소타에서 열리는 교단 총회에서 합법화 과정을 거친다.

최근 데이비드 바드 주교는 이 회의에 대해 “계획안의 합법화 요구가 아닌 이에 대한 찬반투표”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총대들이 교단의 미래를 위한 모든 좋은 선택권을 고려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필리핀 카비테 총회는 이 계획안을 공식 승인하고 교단 총회에 제출했다. 시에라 리온 총회도 계획안 찬반 투표 결과 322 대 0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두 번째 지역 교단이 됐다.

성도 수 1,300만 명으로 미국에서 2번째 큰 교단인 UMC는 성소

수자를 포용하는 문제를 놓고 수년 동안 논쟁을 벌여왔으며 동성 결혼과 동성애자 성직 허용을 금지하는 동성애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또한 작년 2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특별총회에서 기존 동성애 반대 입장을 다시 천명

했다.

그러나 UMC 내 진보 성향 지도자들은 미국과 서유럽에서 교단의 전통적인 입장을 반대하며 투쟁을 계속할 것을 밝혀 결국 교단 분립 계획안이 제안되기에 이르렀다고 CP는 전했다.

이미경 기자

캘리포니아주 의료보험 의무화 및 미가입 벌금에 대비하세요!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Since 1996 Operated by Logos Missions, Inc.

*미국 내 의사, 병원 제한 없고, 한국은 물론 전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문의: 이사라 213.318.0020 | www.cmmllogos.org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비영리단체등록
- 특허
-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Miracle! You can make it

World Share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의 인생 **전부**가 바뀝니다.

World share USA는 국제 구호 NGO 단체입니다. 월드쉐어 USA는 UN과 함께합니다. 월드쉐어 USA는 질병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고아와 절대 빈곤 아동들을 사랑으로 후원합니다.

한 달에 **30불, 35불** 소액 회원 가입으로 생명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세요!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밝히는 World Share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World Share USA
3123 W 8th St.#206.,LA CA 90005

■ 후원 문의: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213)318-5227

만남의교회 웨딩 사역 “가족의 의미와 행복 찾았어요”

나이, 국적 관계없이 결혼식 올리지 못한 부부 추천 받아



멕시코 현지에서 드려진 만남의교회 결혼식



결혼 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한 부부들

남가주에 소재한 한인교회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살고 있거나 결혼을 준비하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무료 웨딩 사역을 펼치고 있어 화제다.

놀스릿지에 소재한 만남의교회(담임 이정현 목사)는 2018년 6월 무료 웨딩 사역을 시작해, 5쌍의 단독 결혼식과 3쌍의 합동 결혼식으로 총 8쌍의 부부가 결혼 예식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왔다. 이 가운데 4쌍은 외국인 부부이며 한국인 부부도 4쌍이나 된다. 특히 이 중 1쌍은 가족이 없던 탈북자 부부로 결혼예식과 함께 온 교인들이 가족이 됐던 훈훈한 사례도 있었다.

이정현牧사는 “요즘 세상에 결혼을 올리지 못하고 사는 부부가 어디있나?”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우리 주변에는 소외받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다”며 “무료 웨딩 사역을 통해 가정의 바로 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한다.

만남의교회 웨딩 사역은 단순히 결혼식을 갖지 못한 부부에게 결혼식을 돕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부부는 결혼 예식에 참여하기에 앞서 ‘결혼 상담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결혼 상담 프로그램은 리폼드 대학 학장인 조진성 사모가 강

사로 나서 부부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교육하고 부부가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교회는 다민족들을 섬기기 위해 결혼 카운슬링 교재를 한국어, 영어, 스페니쉬 등 3개 언어로 제작해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다.

이정현 목사는 “결혼 예식 후 부부들은 공통적으로 ‘예식 없이 살던 때와는 달리 가족의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고 대답한다”며 “이분들이 아름다운 결혼 예식과 상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올바르게 배워, 가정이 더욱 안정되고, 서로를 믿고 배려하며 진실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어 보

람된다”고 전했다.

웨딩 사역에 임하는 봉사자들의 열정도 대단하다. 봉사자들은 만만치 않은 결혼 예식 경비 마련을 위해 드레스, 꽃, 장식, 화장, 사진, 머리스톤, 프로그램 제작, 축가, 주례, 리셉션 등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아낌없이 내놓았다. 또 웨딩 사역을 위해 봉사자들이 직접 멕시코 선교지를 방문해 합동결혼식을 치르기도 했다.

이 목사는 “개개인이 가진 시간과 재능을 모아 정성을 다해 준비한 결혼식으로 부부들에게 최고의 날을 선사할 수 있었다”며 “웨딩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계

속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길 소망한다”고 했다.

이 목사는 “나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주변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분들이 있거나, 무료 웨딩 사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추천해 달라”며 “결혼식을 통해 더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만나교회 웨딩 사역 문의는 조준희 : 818-903-5687 또는 교회 818-882-9191로 하면 된다.

김동욱 기자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2020 목회자·사모 컨퍼런스 개최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가 주최한 2020 복음과 성령 컨퍼런스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회장 이명희 목사)는 지난 9일~10일까지 나눔과 섬김의교회(담임 김종용 목사)에서 목회자 및 사모를 대상으로 2020 복음과 성령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 강사로 나선 이상목 목사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목회자와 사모의 영적 회복이 필요하다”며 “

목회자와 사모를 시작으로 온 교회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말씀과 찬양, 기도가 충만해지고 성령의 역사와 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면 “코로나로 불안한 사회, 그리스도 사랑 전할 때” 이어]

코로나바이러스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극도의 두려움 또한 안돼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는 “코로나바이러스를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극도의 두려움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일상생활을 하지 못 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SNS 상에서 떠도는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로 혼란을 부추기 기보다는 정부와 전문가들을 신뢰하고 개인위생에 각별히 노력하며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신승훈 목사는 “주님의 영광교회는 토요일과 주일에 본당 및 교육관을 소독하고 모든 훈련 및 소그룹 모임 시 손 세정제 사용, 예배 시 마스크 착용, 면역이 약한 성도들의 가정 예배 권고 등 확산 방지 노력에 기울이고 있다”며 “이 기간 몸과 환경을 청결

히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기쁜우리교회 김경진 목사는 “각 교회별로 상황이 달라 예배나 모임에 대한 대처 방안이 다를 수 있다”며 “기쁜우리교회는 일단 주일 예배와 토요 새벽기도회를 제외한 모든 주중 모임을 일시 중단하고 확산 감염과 방지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진 목사는 “자칫 움츠러들기 쉬운 상황에서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자 한다”며 “독거노인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돕거나 생필품을 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려 한다”고 전했다.

“건강 보험료 부담은 확실하게 덜어드리고 혜택은 골고루 받는 아주 괜찮은 헬스케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뉴저지 주 벌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프로그램	Complete (컴플릿)	Super(슈퍼)	Essential(에센셜)
1인	\$220.00	\$165.00	\$50.00
2인	\$440.00	\$330.00	\$100.00
3인	\$660.00	\$495.00	\$150.00
본인부담금	\$500/year	\$500/year	\$7,500/year
지원금	\$2 Million	\$1 Million	\$150,000
지원내용	의사비, 검사비, 치료비 응급실, 입원, 수술 건강검진(\$1,000)	의사비, 검사비, 치료 응급실, 입원 건강검진(\$500.00)	응급실, 수술, 입원

Altrua는 1995년에 설립된 비영리 선교단체로서 그동안 수만의 회원들의 의료비 지원을 해온 건설한 단체입니다. 이번에 한인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한국 회원들을 위해 더욱 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한달에 \$165로 최고 1백만불까지 지원, 의사방문, 검진, 검사, 입원, 수술까지 해결!

- 의료비 신청 본인이 하지 않음
- 각 플랜: 응급실 사용 가능
- 한국 병원에서도 혜택
- 비 흡연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64세까지)
- 장례비 보조
- 그룹 플랜도 가능

·한인지원센터의 상담원들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인지원센터

Tel : (714)738-1234 Fax: (714)738-1238
251 E, Imperial Hwy #410 Fullerton, CA 92835
email: info.primeh4@gmail.com

문의: 티나 정 (tchong.prime@gmail.com)
그룹문의: 스티븐 정 (schong.prime@gmail.com)

*Prime.ahs.family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정보 및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48

“고난의 때에 더욱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코로나 바이러스19의 확진자가 나라별로 증가되면서 세계적인 재앙이 되어 가고 있다. 사람들 안에 두려움이 더욱 팽배해지고 미국도 힘들어지고 있다.

며칠 전 필자의 아내가 우리도 물과 라면, 화장지 등을 비축해 두어야 하지 않을까 물을 때 평소 같이 하자 했었다. 그런데 집에 화장지가 떨어져 구입하려 하니 코스코, 샘스클럽, 타겟 까지도 물과 화장지가 동이 났다. 미국 온 지 32년 되었는데 이런 상황은 처음 다친다.

생사의 갈림길이 되어가는 전염병 앞에서 속수무책인 인류의 모습을 보며 하루하루 당혹 속에서 지낸다. 한국의 교회들 예배 소식을 공중파 일반 방송이 조명을 하여 보도한다. 한국 대형 교회 중심으로 340개 교회의 예배 현황을 보도하면서 50개 교회가 평상 예배를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290개 교회는 온라인 방송예배 등을 동원하여 모이지 않는 개별 예배로 전환했다고 보도했다.

수많은 청년, 사회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교회들을 향해 교회가 사회의 위에 설 수 없다 하며 예배 철폐를 부추기고 있다. 아니 필자의 눈에 협박에 가깝다. 이런 보도를 접하며 교회들이 서로를 향해 비난하면 어쩌나 두렵다.

공개석상에서 한 분이 필자에게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었다. 담임목사와 리더십들이 결정하게 되겠지만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든지 교회들끼리 다른 모습의 교회들을 비난하는 분열되는 모습이 우려된다. 교회를 와해시키려는 사탄의 계교가 이 전염병 가운데서도 보이기 때문이다.

말을 바꾸어 2014년 터키에서 만난 터키 G도시(단기선교팀이 꾸준히 전도사역을 하던 도시) 개신교회의 루카스 형제(가명)가 생각한다. 루카스 형제도 단기선교팀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리고 그 도시엔 미국 선교단체 파송 선교사였던 피터 선교사(가명) 내외가 사역을 했다. 그 선교사들에게 소개가 되어 피터 선교사 내외가 3년간 루카스 형제를 강권하게 양육했다. 그러다가 피터 목사 내외의 터키 선교사역이 발각되어 추방되었다. 교회의 지도자가 추방된 상태로 더 이상 교회가 버틸 수 없다고 외부에서는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포기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G도시 개신교회에서 들려온 소식은 훈련받고 성장한 루카스 형제가 선교사의 뒤를 이어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 있다는 것이었다. 담임 선교사가 추방이라는 고난에 있게 된 것이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더욱 강하게 하였다. 더 전도했고, 교회 안에 시리아 난민교회와 아프리카 교회, 영어교회 등의 예배를 확대하여 더욱 강성한 다민족 교회 형태로 성장했다. 그 모델을 증거 하기 위해 2019년 5월 한국에서 열렸던 글로벌 얼라이언스에 터키교회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초대되어 그간의 사역을 증거 할 때의 감격은 아직도 생생하다.

또 한 가지 이야기는 그보다 4년 전인 2010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한인 선교사의 폭탄테러 순교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그 이후 사역은 포기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그 고난 가운데 남겨진 부인 선교사와 두 딸이 아버지가 못다 한 선교의 꿈을 이어갔다. 그 절망 가운데서 그들은 고난을 뚫고 10년이 지난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어린이 사역, 여성 사역, 교회 개척 등 실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19의 발생으로 인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강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믿는 것이다.

각 선교단체들의 일정들도 차질을 빚으면서 많은 선교의 문이 닫히고 있다. 강한 사명감으로 어떻게든 선교지의 문을 두드리는 사역자들은 “확진자”의 위험성 때문에 인콰으로 책망을 받고 있다. 갈수록 더욱 좁혀질 수도 있다. 그러나 비록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열방의 모든 지역 복음의 사명자들에게 더욱 강하게 나타나실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자. 그리고 우리가 정녕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자.

심기고 나누는 월드웨어 USA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덕분에?

지독한 알콜 중독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술주정뱅이로 살았으니 가정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두 아들은 어렵게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과정에 알콜 중독자 아버지와 주변 환경으로부터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두 아들이 성장했습니다. 큰 아들은 정신과 의사가 되어, 알콜 중독자를 돕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비슷한 술주정뱅이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진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정신과 의사가 되고 알콜 중독자들을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기자의 질문에 의사인 큰 아들이 대답합니다. “저는 알콜 중독자 이신 아버님 덕분에 의사가 되고 알콜 중독자를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심한 알콜 중독자가 되었습니까?” 둘째 아들이 대답합니다. “저는 알콜 중독자 이신 아버지 때문에 속이 상해서 술을 마시다 저도 알콜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가정환경에서 같이 상처 받고 같은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했습니다. 아버지의 알콜 중독도, 아버지의 주벽으로 인한 가난한 가정 형편도 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두 아들의 삶에 대한 아버지의 영향력은 지대했습니다. 아버지의 삶이 두 아들의 인생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했습니다. 큰 아들이 의사가 되어 알콜 중독증 환자들을 돌볼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의 알콜 중독증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술주정뱅이가 되고 알콜 중독자로 살아가는 이유도 아버지의 알콜 중독증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합니다. 먼저, 수용력과 감수성의 중요성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수용력과 감수성을 가진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이 만들어 내는 결과물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



강태광 목사
월드웨어 USA

콜 중독으로 고생하시는 아버지를 보며 중독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한 큰 아들은 중독의 치료를 돕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알콜 중독으로 고통을 주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한잔씩 마셨던 술로 인해서 아버지와 같은 알콜 중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망치는 인생이 있고, 아버지의 가난 덕분에 인생을 멋지게 사는 자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부자라는 것은 큰 유익입니다. 아버지의 부유함은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부유하다는 큰 유익을 활용하지 못해서 아버지 부유함 때문에 오히려 망하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버지의 가난은 장애요 어려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아버지의 가난 덕분에 성공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둘째, “때문에 삶과 덕분에 삶”의 차이입니다. 두 아들의 엇갈린 삶의 이유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아버지 덕분에 (Thanks to) 의사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Because of) 알콜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 덕분에 돕고 섬기는 근사한 삶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힘겹고 어려운 삶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덕분에(Thanks to)”는 긍정의 결과의 이유를 설명하는 말이고, 반

면에 “때문에(Because of)”는 부정적인 결과의 이유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원인이야 어떠한건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인생이면 ‘덕분에 인생’입니다. 반면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만드는 인생은 ‘때문에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은 때문의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덕분에의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때문의 인생은 실패의 인생입니다. 반면 덕분에의 인생은 승리의 인생입니다. 덕분에의 인생은 삶의 모든 환경을 활용하고 누리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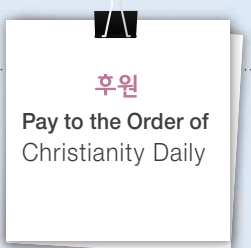
코로나 사태로 온 세상이 들끓고 있습니다. 사망 숫자도 확진자 숫자도 나날이 기록 갱신 중입니다. 두려운 것은 이 사태의 끝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여파가 우리 삶 깊숙이 침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 때문이 아닌 코로나 덕분에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들도 코로나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움츠려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새벽 기도를 멈추고, 코로나 때문에 모든 모임을 멈추고 코로나 때문에 곧 예배를 멈출 계획이라고 광고를 합니다. 반면에 어느 교회는 코로나 덕분에 더 기도하자고 광고합니다. 코로나 덕분에 모임도 취소되고 하니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고 했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바른 신앙을 갖는 기회를 갖자고 했습니다. 더 조심하고 더 주의를 기울이면서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자고 역설했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진 날 ‘코로나 덕분에 얻은 것이 많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더 기도하고, 코로나 덕분에 하나님 더욱 의지하고 코로나 덕분에 더 겸손하고 코로나 덕분에 더 청결하고, 코로나 덕분에 때문의 인생이 아닌 덕분에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존킴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바이러스를 죽이는 마스크가 왔다!

VK마스크 시판

특수 발효소금의 초강력 필터 개발!
마스크는 필터링이 생명!

VK 소금필터의 특징

바하만 청정지역에서 염도가 높은 바닷물을 끌어들이 진흙뻘에 1년간 숙성시킨후 4년간 햇빛과 바람으로 만든 자연산 천일염으로 특수코팅!
중금속 0%! 간수0%! 미세플라스틱0%! 85가지 미네랄 천일염!
특수소금필터는 호흡기를 통해 마스크에 습도가 생기면 소금분자들이 분자 분해를 일으켜 호흡기 방향으로 이동하여 보호해준다.
일반 마스크는 습도가 발생하면 박테리아균이 발생되어 장시간 사용할 수 없지만 VK 마스크의 천일염 특수 패드는 멸균과 동시에 입안에 냄새도 제거해 준다.
VKM 소금필터는 특수 코팅되어 3주 이상 사용할 수 있다. (1회 찬물에 1-2분 세척가능)
마스크 필터에는 특수소금이 코팅되어있어 바이러스가 마스크에 접근하면 소금의 결정이 바이러스를 파괴한다.
바이러스가 사멸된 마스크는 균이살지 못하므로 재활용도 가능하다

1개 \$20
1인당 10개 한정
3주 이상 사용가능

U.S. Patent Serial No.: 88819662



특수 천일염 필터 마스크로 자유롭게 안전하게!

판매처

VK 마스크 특수필터는 코셔미네랄 천일염 소금연구소 제공.
KoshreMineralSeaSalt.com

Space Eum Cafe
3020 Wilshire Blvd. #100
Los Angeles, CA 90010

213.386.3896
213.605.2772

100% HANDMADE
MADE IN USA

VKMask.com
Virus Killer Mask
VKMask, Inc.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세요

세계각국 및 지역 대리점 이메일로 접수: info@vkmask.com

신천지 교회 침투 전략과 추수꾼의 특징

가정과 사회 무너뜨리는 신천지 뿌리뽑자(1)

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신천지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사회 전체를 위기에 빠뜨린 신천지의 문제는 비단 본국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지부를 두고 특별히 미주에서는 남가주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는 신천지로 인한 피해는 남가주 한인교회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이에 본지는 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 한선희 목사로부터 신천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아 신천지의 실체와 이단성을 살펴보고 남가주 한인교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남가주 지역 신천지 피해 관련 제보를 받습니다. -편집자주

한선희 목사
◇약력

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장
미주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
세계기독교이단상담연구소장
세이언 상임위원, 사무총장



신천지 누구인가? 신천지 발생과 뿌리

신천지 창시자 이만희(본명 희재)는 1931년생으로 2020년 현재 89세다. 1948년 17세 때에 믿음 없이 외국 침례교 선교사에게 침례를 받았고, 1967년 생수로 신유의 능력을 베풀다며 성도들을 미혹하던 박태선의 전도관에 입교했다.

1969년 다시 전도관 탈퇴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재열의 장막성전에 입교해 시한부 종말설이 불발된 그 해 11월경 탈퇴했다. 1970년 초에는 자칭 하나님 백만봉을 추종하다가 1980년 3월 시한부 종말설이 불발되자 1980년 3월 14일 안양시 비산동에 탈퇴자들과 함께 '새증거장막'세움으로 시작된 것이 신천지다.

1984년에는 12지파를 창설하고 홍종효 씨와 함께 자칭 '두 증인', 또는 '모세'와 '아론'으로 행세하며 출병하였으나 1987년에 사소한 문제로 홍종효와 다툼 후 결별했다. '추수꾼'들을 파송하여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으며 신천지를 추종하는 자들은 2020년 현재 약 21만 명 정도의 신도들이 있다. 본부 산하 요한지파

를 비롯해 시몬지파, 바돌로매지파, 마태지파, 빌립지파, 맛디아지파, 도마지파, 베드로지파, 다대오지파, 안드레지파, 야고보지파 지역별로 12사도의 이름으로 활동한다.

신천지의 이단 교리

신천지 홈페이지에서도 공개하고 있듯이 이만희는 학교나 신학 교를 다닌 적이 없다. 신천지 교리는 이만희 교주의 신앙 전력에서 그 뿌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가 추종하며 전전했던 기존의 교주들의 교리를 모방하거나 수정한 여러 이단 교리의 혼합물이라고 할 수 있다.

신천지는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부인하고 이만희를 통한 직통 계시를 말함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경을 왜곡하는 이단사이비 종교집단이다. 교주 이만희는 자신을 이긴자, 보혜사, 사명자, 감람나무, 동방의 의인, 알파와 오메가, 인치는 천사,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주장하며, 기독교계를 대적하고, 이만희를 포함해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육체 영생을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자신을 재

림주라고 주장하면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가르친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교주인 자신을 믿어야 구원을 받으며 신천지 교리인 새 언약과 새 일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가르친다. 더 나아가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이 곧 심판이라고 주장하면서 종말은 시대마다 온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시대는 교주인 자신이 나왔으니 종말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신천지는 크게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첫째는 육체의 영생을 주장한다. 둘째는 이만희가 재림주이다. 셋째는 비유풀이 성경공부를 통해 세뇌시킨다. 시대별 구원자는 창세 때는 노아, 초림 때는 예수님, 재림 때는 이만희라고 주장한다.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에게 왔으며,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 신인합일 교리를 주장하며 신천지 12지파로 합당한 자 144,000명이 모이면 순교한 영들과 합일되어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제사장이 되어 영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계시록이 신천지 교회의 예언과 실상이라고 고집한다.

신천지가 14만 4천에 집착하는 이유는 신천지 신도들의 죽을 몸이 죽지 않는 영생불사의 몸으로 변하는 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믿고, 그것을 학수고대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때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라는 꿈에 부풀어 있다. 그들은 부활에 대한 왜곡과 오해로 인한 허황된 사기극에 속아 도박 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은 계시록에 약속한 이긴 자(계 2, 3장, 21:7)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만희가 이긴 자이며 이를 부인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이며 마귀의 영에게 조종을 받는 자라고 가르친다. 또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이긴 자에게 임하여 하나가 되므로 곧 이긴 자의 이름이 예수님의 새 이름이요 새 이스라엘이며 새 예루살렘이라고 주장하며 목자를 찌르는 것은 재림예수님을 찌르는 자가 된다고 거짓 교리를 교육한다.

처음 교육받는 사람에게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 구세주, 재림주라고 가르치면 아무도 안 믿기 때문에 재림주를 가르치기에 앞서 세뇌교육이 있다. 그 세뇌교육은 예수님의 12가지 비유인데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12가지 비유를 자세히 가르쳐 준다. 이후에는 인간관계 형성 4-5개월, 비유 공부 3개월, 이렇게 9개월 동안 신천지 교육을 받으면 '추수꾼'과 '추수밭' 이야기가 나온다. 그때 신천지인 것을 알게 되지만 이미 늦었다. 신천지는 정착률이 거의 100%이다. 빠진 사람은 나올 수가 없는 무서운 세뇌교육이다.

신천지 전도 및 공부 단계

정통교회에서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것과 달리 정통교회 신자들이 전도하는 신천지들은 성도들을 미혹한 후 복음방이라 불리는 개인집과 가게, 대학 강의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만남을 가지며 1:1 교육으로 성경 관점을 변화시킨다.

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포교하는 것과 반대로 신천지는 소위 '모략'이라는 포교방법은 거짓말과 속임수로 자신들의 정체를 감추고 교묘히 접근해 친분과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에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 접근을 통해 성경공부로 유도하는 것이 모략 전도의 기본이다.

복음방을 거치면 정통교단에

서 사용하는 다양한 이름을 사용하는 교육센터에서 비유풀이를 배우는 초등과정, 신천지 교리를 배우는 중등과정, 계시록을 배우는 고등 화정을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가진 후 시온 교회로 옮겨 본격적인 추수꾼 역할을 맡게 된다.

교육을 마친 신도들은 본인이 섬기는 정통교회에서 추수꾼으로 남아있게 유도한다. 정통교회 신도로 가장해 모든 정보와 포섭 대상 성도들의 정보와 교회 양육 제도 및 시스템 등을 또 다른 신천지 추수꾼들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알곡 선정, 목자로 가장, 조직 점령 등의 체계를 갖추고 교회를 통째로 삼키기도 한다.

신천지의 교회 침투 전략과 추수꾼의 특징

신천지는 직장, 문화센터, 건강 세미나, 학부모 모임 등 생활 속 어디든 자연스럽게 만남으로 끈끈한 교제를 확보한다. 또 가족이나 지인도 속이고 외부에서 접근하게 하며, 교회 주변이나 버스 지하철에서 성경이나 기독교서적을 읽는 사람에게 접근해 연락처를 확보한다. 그리고 열린 성경세미나, 찬양 집회, 계시록 세미나 등 위장 세미나로 미혹하고, 장로교나 순복음교회 등의 정통교단을 사칭 미혹해서 비유 풀이와 계시록 세미나로 미혹하기도 한다.

신천지 전도전략은 2인 1조가 성공교회에 침투한다. 신천지교회는 주일에 10시 예배를 30분만 드린다. 짧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30분만 예배드리고 30분은 인근 교회에 침투해 들어가는 시간을 주는 것이다. 2인 1조가 되어서 정통교회 11시 예배에 들어가야 의심을 안 받고 잠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5-6개월 조용히 있다가 교인들을 빼간다. (계속)



신천지 복음방 교육을 마친 사람들

2020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p>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BHE 정회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홍준 목사)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p>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p>	<p>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기독교회(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시역 가능 목회학 석사 과정 신설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716(26)227-3454 <p>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관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dmissions@aeu.edu</p>	<p>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p> <p>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p> <p>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s.edu</p>	<p>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p> <p>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속 목사고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p> <p>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p>
<p>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BHE,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온캠퍼스의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p>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p>	<p>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TRACS 정회원 인준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p>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p>	<p>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p> <p>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p>	<p>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p> <p>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p> <p>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p>
<p>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p> <p>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p>	<p>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p> <p>With the world! To the world!</p> <p>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p>	<p>FULLER THEOLOGICAL SEMINARY</p> <p>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p> <p>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p>	<p>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p> <p>광고 및 후원 문의</p> <p>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p>

PRESIDENTS' DAY SPECIAL SALE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0%이자가능



NEW 2020 HYUNDAI ELANTRA SE

Lease **\$148** +Tax **0 Down** **\$22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0,00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4,0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NEW 2020 HYUNDAI SONATA SE

Lease **\$188** +Tax **0 Down** **\$26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3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0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NEW 2020 HYUNDAI TUCSON SE

Lease **\$198** +Tax **0 Down** **\$27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7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NEW 2020 HYUNDAI SANTA FE SE

Lease **\$218** +Tax **0 Down** **\$2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7,1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0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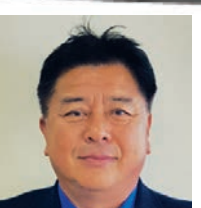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HYUNDAI Assurance



HYUNDAI

1-888-644-7114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미국 기독교계도 코로나19 확산에 '온라인 주일예배'



(상기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PCUSA "안타깝지만 공동체와 이웃 위한 최선"

미국 워싱턴주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이 지역 미국장로교(PCUSA)가 교회들에게 온라인 주일예배를 권유하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9일 보도했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곳은 워싱턴주다.

시애틀 노회(Presbytery of Seattle)는 최근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서에서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정기 예배(모임)를 취소할 때가 왔다"고 전했다.

시애틀 노회 공동 노회장인 엘리야나 맥심(Eliana Maxim) 목사와 스코트 럼스덴(Scott Lumsden) 목사는 자신들의 명의로 된 성명서에서 "노회 지도자로서 이번 결정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 결정이 우리 공동체, 이웃, 그리고 교인, 가족과 친구들을 위한 최선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이어 "에레미야 선지자는 도시를 위해 주님께 기도하라고 말한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도 안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예배를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바꾸자"고 덧붙였다. 또 이번 결정은 "대형 집회는 취소해 달라"는 정부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이미 많은 분들이 오는 주일 예배를 앞두고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어서 감사하다"면서도 "조언을 덧붙이자면, 추가적인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예배(모임)를 취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애틀에 소재한 독사교회(Doxa Church) 역시 주일예배를 현상이 아닌 온라인으로 드린 것으로 알려졌다. 독사교회는 대형교회인 마스힐교회의 메인 캠퍼스였다. 이 밖에, 벨뷰 웨스트민스터 채플, 바벨의 이스트레이크 커뮤니티교회, 일부 대형교회들도 주일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있다.

강혜진 기자

그렉 로리 목사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꿀 수 있다면..."

SNS에 코로나19 관련 글과 설교 게재



그렉 로리 목사. ©하비스트 미니스트리

미국 하비스트교회(Harvest Church)의 그렉 로리(Greg Laurie) 목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는 기독교인들이 용기를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그렉 로리 목사는 최근 자신의 SNS에 올린 메시지를 통해 "미국에 코로나19와 관련된 많은 두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을 믿음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로리 목사는 "의료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손 씻기 등 적절한 방법을 취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빌립보서 4장 말씀과 같이, 걱정하는 대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라와 우리 자신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진리이다!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전까지 기독교인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로리 목사는 인스타그램 메시지와 함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설교 영상도 올렸다.

영상 속에서 그는 "어떤 면에서 바이러스에 대해 입으로 전해지는 공포가 바이러스 자체보다 더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며 "물론 실제로 자신들을 돌볼 필요가 있으나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주님은 방패로 우리를 막아주시실 수 있다"고 했다. 또 이미 바이러스에 걸린 이들의 치유를 위한 기도도 요청했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는 지금의 때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말할 수 있는 기회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교회 소식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 삶 내적치유 영성성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채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주일예배 오전 11: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평신도 리더쉽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토요일 아침예배 오전 9:00

씨니킴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셔널) 오전 9:30
3부예배(자세대) 오전 11:30 *한양사목각예 15분 전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 (수)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오전 6:20(토)

김기성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를 책임지며, 이만기정중치료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den 코너)
T. (213) 368-2233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일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 4차선)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OM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청년예배 오후 12:30
친양예배 주일오후 2: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EM 오전 11:00

차성구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십자가 복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대예배 1부 오전 8:00 새가족 성경공부 오후 1: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 (목) 오후 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정병노 담임목사

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384-8690, (213) 820-7240 Email: lasehil2011@gmail.com
(87와 Westmoreland 코너 First Baptist Church 건너 입구4차선)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EM 오후 12:30

노영호 담임목사

새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영광/강 7:21)

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6-0685 www.lasaehan.com

1부예배 오전 9:00 청년부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영유아부 유초등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정인호 담임목사

예수마을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249-9191 www.lajvc.webchurch.kr

1부예배 오전 8:30 EM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중고등부 오전 10: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유치부, 유년 초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00

곽건섭 담임목사

에은장로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T. (213) 745-9997

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00

박은종 담임목사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김중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ew@hotmail.com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주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셋에델민예배 (소매예배)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부 유아 아동부 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매주 화-토 오전 6:00
청년부 예배 오후 1:30

김신 담임목사

주향 교회
나눔의 행복이 있는 교회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4951 / 4952 F. (213) 383-5085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지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 친 초 정신의 흐름, 바른 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치부/유년부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청년대학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은목 담임목사

평화교회
성령의 진리로 깨어 성령을 통해 해리서명과 이웃사랑에 힘쓰는 교회

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www.pccj.church

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신묘모내기 만리부 지역 연합한인교회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박효우 담임목사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 381-949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국학교주일 오전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음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정동석 담임목사

나성교회

1620 N.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562) 690-0038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령으로 새 생명을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org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30(토)

이종천 담임목사

뉴스송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272-9126 / www.newsongcorona.com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유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토) 5:30(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목)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화) 汉语圣经班: 周二晚上 七点半

조준민 담임목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주일예배 오전 9:00(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오전 11:00(본성전)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1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묵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꿈에야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말미기도회(미라미)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토)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ia@hnsia.org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CCC Academy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0(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요 내 길에 빛이입니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양청년부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 F.(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국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절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오명천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벨리레드 MP채널 **최 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8:00 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후 1:30
금요성경집회 오후 7:30 9:00성경공부 화 7:45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30 / 토 오전 6:00 588 Alhambra Ave., Monterey Park, CA 91753
1814 Riverside St., Northridge, CA 91326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30 / 토 오전 6:00
T. (818)363-5887 Fax: (323) 837-9600

주안에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hyun.org

“한국 정부 전 교회 예배 중단 요구, 획일적이고 사회주의적”

교회언론회 ‘예배는 명령으로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 논평



온라인 예배 중계 모습. ©사랑의교회

국회 종교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 기독교 겨냥
기독교 예배가 코로나19 주 원인인 듯한 결정

령'으로 예배를 중단하려는 위험한 발상은 버리기 바란다'고 제언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에서 '예배는 명령으로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 왜 사회주의적 발상들이 난무하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9일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정부와 국회에서는 기독교의 주일 예배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7일 국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며 “말이 ‘종교’이지 실상은 기독교를 겨냥한 것이다. 이유는 폐쇄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때 2,3차 감염이 우려된다는 것인데, 이는 마치 기독교의 예배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의 주 원인이라도 되는 듯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즉 슈퍼전파자로 지목된 신천지와 기존 교회를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하는 태도”라며 “그러나 기독교는 이미 2월부터 자발적으로 예배 방법을 온라인으로 바꾸고, 철저한 방역을 통하여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지키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회언론회는 “전 교회에 예배를 중단하라는 요구는 매우 획일적이고 사회주의적인 발상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여기에는 각 언론들이 기독교의 예배를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태도도 한몫 거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기독교에서 생명처럼 여기는 예배를 정부나 권력을 가진 집단들이 마치 ‘취락파랏’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도 문제이고, 교회가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데 이를 비판 대상으로 삼는 언론의 잣대도 문제”라며 “지난 2월 27일 교계 유명 단체는 여론조사를 통해 주일예배 중단에 교인들 찬성이 71%라고 발표했다. 예배가 여론조사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만약 언론들이 1주일에 한번씩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집단모임으로 간주해 질병 확산의 원인으로 보았다면, 국민들의 모든 사회 활동을 중지하라는 보도를 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하다”며 “그러함에도 일부 교회의 예배를 문제 삼는 것은 외눈박이의 시각이며, 교회를 흡입 내려는 저급한 시도”라고 성토했다.

또 “지난 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검토’를 하고 있다고 페이스북에 올렸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정부가 맡은 방역에 충실하면 된다. 불필요하게 신천지와 같은 이단 단체와 기존 기독교를 싸잡아서 강제적인 ‘명

이대웅 기자

신천지 신분 숨기고 문성교회서 ‘찬양 지휘’

약 1년 전 ‘피아노 조율’로 접근... 보건당국에 들통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코호트 격리 중인 대구 문성병원. 문성교회는 이 건물 11층에 위치해 있다. ©네이버 지도 거리뷰 캡처

지금까지 2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대구 문성병원의 첫 번째 확진자 A씨가 신천지 교인인 것으로 드러났고, 그가 이 병원 11층에 있는 문성교회에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소위 ‘추수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데, 현재 이 교회 성도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구시는 문성병원을 폐쇄 조치했으며,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자신이 신천지 교인임을 숨기고 있었지만, 보건당국의 조사로 그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약 4년 전 문성병원 주차 관리 직원으로 취직했고, 1년 정도 전부터 문성교회에 다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신천지 측은 이에 대해 “A씨는 신천지 대구교회 자문위원으로 문성병원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했다”며 “A씨는 문성교회 목회자로부터 ‘교회에 와서 성가대 등을 해달라’는 권유를 받았다. 당시 목회자는 A씨가 피아노조율과 성악지휘에 소질이 있는 것을 알고 교회 출석을 수차례 권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예장 합동 대구노회 소속인 문성교회 김진홍 목사는 10일 본지와 통화에서 A씨에 대해 “자기가 피아노 조율 기술이 있다면서 교회 피아노를 만져주고, 예배도 드리곤 했다. 그렇게 은근슬쩍 어울렸다”며 “또 (교인들이) 찬송 부를 때도 도와 주었다. 성가대와 찬양 지휘, 그 정도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집사님’으로 부르고 그렇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A씨는 계속되는 목회자의 요구를 거절할 시 해당 건물 주차관리부에 불이익이 생길까 우려돼 문성교회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저희 측에서도 보도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문성교회는 병원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해 직원들과 환자들이 찾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교회다. 그래서 일손이 모자랄 수밖에 없고, 마침 병원 직원인 A씨가 피아노 조율도 한다기에 특별한 의심하지 않았다는 게 김 목사의 설명이다. 그는 “처음에 잘 분별해 밝혀냈으면 좋았을 뻔했다”며 아쉬워 했다.

아울러 “현재 A씨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으며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다. 건강이 회복 되는대로 정확한 사실 여부를 파악해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문성교회는 지난달 16일 이후 현장에

하지만 문성교회 김진홍 목사는 “(A씨의 신분이) 신천지라는 걸 보건소에서 밝히기 전까지는 (A씨가) 물어봐도 영뚱한 이야기만 하고 계속 잡아땀다고 한다”며 “신천지로 분명하게 드러났고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교회로) 올라와서 활동했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일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저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45 목요일예배: 오후 7시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화-금)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설모임: 매달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92833
T. (714) 525-0191 / www.ebsc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www.dagamsachurch.org

김일권 담임목사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424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상사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아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후 12:3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영아, 유아, 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Youth 청년 오후 12:3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749-7770 www.saemmoor.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박식중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아)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8: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청년부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아)

김인철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일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1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명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월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하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하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릿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일예배 오후 7:30

최성철 담임목사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영아)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T. (714)646-9259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영아 예배 오전 10:00 오전 6:00(토)
유초등 예배 오전 11:30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868
T. (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oc.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OSEPH SU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뉴욕교협, 대구경북 코로나 극복 위한 모금 당부



5일 뉴욕교협 부활절연합예배 1차 준비기도회에 참여한 목회자들이 대구경북 지역을 위한 모금운동과 관련해 사랑을 전달한다는 의미로 손가락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양민석 목사)가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을 위한 특별모금운동을 전개한다.

뉴욕교협은 5일 “코로나가 한국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유례없는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특히 대구, 경북의 경우 이로 인해 경제는 거의 마비상태에 빠지고 주민들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면서 모금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모금은 뉴욕총영사관, 미주한국일보, 미주중앙일보 후원한다. 특히 두 언론사가 뉴욕교협측에 성금모금을 동시에 건의해 지난 4일 뉴욕교협이 내부협의를 갖고 모금운동을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뉴욕교협은 모금 참여와 관련,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도 확산의 염려가 있어 긴장되고 있지만 더욱 시급한 모국의 현실을 감안하여 각 교회와 목사님들께서는 기도하며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뉴욕교협은 언론사 등을 통해 모금되는 전액을 모아 개인 위생용품, 의료진, 봉사자 및 자가격리자 지원 등에 사용되도록 뉴욕총영사관을 통해 대구, 경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뉴욕교협은 5일 오전 10시30분 평화교회(담임 임병남 목사)에서 진행된 부활절연합예배 1차 준비기도회에서 한국의 코로나 확산 방지 및 극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뉴욕=김대원 기자

워싱턴주 한인교회 코로나 확산에 주중 모임 일시 중단 발표



시애틀 온누리교회는 웹사이트를 통해 시애틀지역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예배 변경을 안내하고 있다.

시애틀 지역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시애틀 소재 회사와 학교가 건물 폐쇄와 수업 중단을 선언하는 가운데, 워싱턴주 한인교회도 주일 예배를 제외한 주중 모임을 일시 중단하고 보건 당국의 발표와 지침을 주시하고 있다.

시애틀 온누리교회는 “주변 교회들이 실시하는 방침에 준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주일예배 시 마스크 착용을 권하고 성도의 교제와 예배 후 인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워싱턴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발생 후 가장 먼저 당회를 소집하고 대응 방안을 발표한 시애틀 형제교회(담임 권 준 목사)는 현재 대응방안 2단계인 ‘경계’를 유지하며 주일예배를 제외하고 새벽기도회를 포함한 모든 주중 예배를 중단한 상태다. 교회는 새벽기도회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시애틀 한인장로교회(담임 김범기 목사)도 새벽기도, 수요일예배, 금요일영성예배, 마라나타 성경공부, 영어권 소그룹 모임, 영어권 성경공부 등 주중 모임을 중단하고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기침이나 발열이 있는 분들은 예배실 출입을 자제하고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예배를 드려 달라”고 요청했다.

시애틀 형제교회는 만약 성도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하는 ‘심각’ 단계로 진행될 경우, 모든 예배 및 모임을 중단하고 전 성도들을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게 할 계획이다.

시애틀 한인장로교회는 주일 성인 예배와 청년예배, 영어권 예배, 중고등부 예배 등은 정상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타코마 지역 대형교회인 타코마 제일침례교회도 3월 4일부터 17일까지 주일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를 일시 중단했다. 또 성도들이 해외에 다녀온 경우 또는 발열, 기침, 호흡곤란 증세가 있는 경우는 가정에 머물며 온라인 예배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애틀 연합장로교회(담임 심우진 목사)도 “교인들의 안전을 위해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가이드라인과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대처하고 있다”며 주일예배를 제외한 새벽예배, 수요일예배, 성경공부, 초원 각종 모임을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잠정 중단했다. 교역자를 제외한 주중 교회 시설 출입 또한 일시 통제했다.

시애틀 한인장로교회는 주일 성인 예배와 청년예배, 영어권 예배, 중고등부 예배 등은 정상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타코마 지역 대형교회인 타코마 제일침례교회도 3월 4일부터 17일까지 주일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를 일시 중단했다. 또 성도들이 해외에 다녀온 경우 또는 발열, 기침, 호흡곤란 증세가 있는 경우는 가정에 머물며 온라인 예배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애틀 연합장로교회는 또 교회 식사 및 간식 제공 및 노약자의 안전을 위해 노인 아파트 차량 운행을 중단하고, 예배 전·후 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애틀 온누리교회(담임 김도현 목사)도 주일예배를 제외한 수요일예배와 새벽기도 등 모든 주중 예배와 모임을 취소하고 교역자 외 주중 교회 시설 출입을 금지했다.

한편 워싱턴주는 코로나19로 인해 (3월 7일 현재) 킹카운티 지역에 71명의 확진자와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스노호미시 카운티에 27명의 확진자와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외 그랜트, 제퍼슨, 피어스, 클라크 카운티에 각 1명의 확진자가 검진됐다.

잃어버리고 깨닫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

바이러스 여파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며 모임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드러지는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귀와 온 몸을 휘감는 찬양의 소리, 옆에서 뒤에서 함께 찬양하는 성도들의 합창, 그 자리에서만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입재...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던 특권이었습니다.



정기정 목사
샘물교회

이스라엘 백성은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농경 문화를 접했고, 그것을 성공으로 이끄는 이상승배 문화에 젖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안식년과 절기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고 나중엔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사랑이 없이 의식적인 제사를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였을까요? 예배를 싫어한 백성들에게 주신 회복의 방법은 예배를 빼앗아 가신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종으로 잡혀가게 되니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70년간 다른 나라에서 오직 그들의 신에게만 예배하며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은 뼈저리게 예배와 절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들은 지금까지도 안식일과 절기의 소중함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이 그런 시기에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한국 교회는 6.25 전쟁때에도 예배했습니다.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역사 조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물론 성도의 교제까지도 단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우리의 예배 모임이 소중했구나.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귀한 것이었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소중한 가치들을 일깨워 주십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이런 각성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단체 모임이 없어지고 집에 일찍 귀가하게 되니 '아, 내가 평소에도 이렇게 가정에 관심이 없었구나...' 우리나라의 출입을 거부하는 나라들이 생겨나니 '내가 너무 외국인들을 무시했구나. 그들의 기분은 어땠을까?'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니 '아, 이 입으로 얼마나 나쁜 말을 하고 거짓을 피날랐던가...' 텅텅 빈 예배당에서는 '우리의 자량이 교회의 크기나 성도의 수가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 모두는 평범한 일상이 돌아오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매일 매일의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생각하며 오늘도 감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직 잃어버리지 않은 것들에 대해 감사합시다.

고립의 때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

인생 여정에서 우리는 가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터널을 동굴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터널은 막혀 있지 않고 뚫려 있습니다. 잠잠히 기다리면 어두운 터널은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사람이 잠잠히 기다리는 까닭은 소망 때문입니다. 소망이란 어두운 터널 저 너머에 있는 밝은 빛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인생 여정에서 가끔 거센 폭풍우가 우리에게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거센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우리는 안전한 피난처로 들어가야 합니다.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안전한 장소로 피난해야 합니다. 폭풍우가 밀려오면 두려웁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폭풍우가 영원할 것처럼 느껴 집니다. 두려움은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풍우가 찾아오면 두려움을 물리치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안식해야 합니다(시 46:1, 55:8).

인생 여정에서 몸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아픈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끔 심하게 아플 때가 있습니다. 몸이 많이 아프면 우리는 수동태가 됩니다. 수술을 받을 때 우리는 수동태가 됩니다.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조용히 몸이 치유되길 기다려야 합니다. 몸이 아플 때 조금씩 마음을 먹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픈 몸이 즉시 회복되길 원하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수동태가 아닌 수동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거센 폭풍우를 맞이하거나 몸이 아플 때,

우리는 잠시 수동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수동태가 되어 조용히 기다리는 것은 인생 여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과목입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도, 시간이 이전보다 조금 더 걸릴 뿐이지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두려움 중의 하나는 고립의 두려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격리 상태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하는 것이 고립의 두려움입니다.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어느 곳으로도 갈 수 없는 상태가 고립 상태입니다. 요셉이 깊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는 고립 되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병약한 채 18개월 동안 침대 위에 누워 있을 때 그는 고립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요셉도 허드슨 테일러도 수동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립의 기간에, 수동태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도 고립의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십시오.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시 62:5).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십시오. 고립의 때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요셉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안, 하나님은 그를 위해 친히 역사의 무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을 위해 바로의 꿈을 준비시키셨고, 바로의 꿈을 통해 그를 역사의 무대에 서게 하셨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안, 그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헌신된 선교사님들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그 기간 동안에 중국 내지 선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가 건강했다면 결코 이를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전개시켜 주신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을 무시하는 낙관주의는 희망고문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적 낙관주의자가 되십시오. 성경적 낙관주의는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조용히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 수동태의 시간은 외부 활동을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마치 나무가 겨울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랜드 회사의 박성수회장은 무력증으로 외부 활동을 할 수 없었던 2년 동안에 3천 권 정도의 책을 구입해서 읽었다고 합니다. 그 기간의 독서를 통해 사업 구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립의 때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또한 고립의 때에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조금씩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십시오(롬 8:28).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과하는 우리 민족과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교회가 해야 할 6가지

남침례교 교회성장연구소 레이프웨이 대표를 역임한 톰 레이너 박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1. 패닉에 빠지는 대신 기도에 집중하라.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통제하심을 상기시키라. 이 시련 가운데서 복음으로 담대하게 나아오도록 기도해달라고 격려하라.
2.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개발하라. 대응할 준비를 하라. 예배를 드

릴 것인가, 아닌가? 예배가 중지된다면 그 기간은 얼마나 할 것인가? 교인들이 어떻게 교회와 연결될 수 있는가?

3. 디지털 예배와 성경 연구를 제공할 준비를 하라. 특정 기간동안 모임 수 없다면 디지털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확인해보라.
4. 온라인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격려하라.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계없이 이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출석률이 낮을 때에도 이것이 도움이 된다.

5. 교인들과 지역 사회 구성원을 돕는 계획을 개발하라. 상황이 악화되면, 도움과 기본적인 생필품이 필요한 지역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당신의 교회는 어떻게 반응 할 것인가?
6. 질병을 전염시키는 데 해로울 수 있는 현재의 교회 관행을 수정하라. 지금은 전통적인 인사를 중지시켜야 한다. 몇 년 전에 어떤 교회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컵을 본적 있다. 절대 안된다.

담임목사 청빙

달라스 베다니 장로 교회는 (1986년 설립) 복음연합 장로 교단 ECO (A Covenant Order of Evangelical Presbyterians) 소속 교회로 복음전파와 다음세대로의 믿음 전승을 사명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번 담임목사님의 은퇴(25년 시무)로 생명의 말씀과 사랑의 수고로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실 새로운 담임목사님을 청빙 합니다.

청빙 자격 (자격 조건)

1. 장로교 및 개혁 신학교 M. Div 졸업자.
2. ECO 교단 소속 혹은 가입에 문제 없는 분.
3. 이중 언어 소통이 가능한 분. (한국어, 영어)
4. 미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분
5. 이민 목회 경력 5년 이상

제출 서류 (구비 서류)

1. 교회 소정 양식에 따른 이력서, 목회 계획서 (bethanydallas.org/담임목사청빙공고)
2. 학위증 사본 (대학교, 신학 대학원 M. Div. 최종 학력)
3. 목사 안수증 사본
4. 최근 설교 2편 (mp3 or youtube link)
5. 추천서 2부 이상 (추천인이 청빙위원회에 직접 email 혹은 우편 발송)
6. 자기 소개서, 사모님 자기 소개서

제출 기간

2020년 4월 30일 까지이며 제출된 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류 심사후 1차 대상자에게만 연락드립니다.

제출처

담임 목사 청빙 위원회 (bethanync2020@gmail.com)
*문의 사항은 e-mail로만 문의해 주세요.

달라스 베다니 장로교회 청빙 위원회 

4020 Marchant Blvd, Carrollton TX 75010 Tel.972-395-9200
bethanydallas.org bethanync2020@gmail.com



shalom장애인선교회에서 사무간사를 모십니다

장애인사회를 복음화하는 공동체인
shalom장애인선교회에서는
함께 섬길 사무 간사(재정 및 기타 업무, fulltime)
1인을 모십니다.

- 미국 체류 및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Excel과 Word를 능통하게 다루실 수 있는 분
- LA 거주자 환영

제출 서류

- 이력서
- 자기 소개서

모든 서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halommin@hotmail.com

shalom장애인선교회 Shalom Disability Ministries

LOS ANGELES MONTEREY PARK GOLF ACADEMY 일반인·주니어를 위한 특별 맞춤 골프 프로그램

- 대상 : 일반인·주니어 레슨(8살~18살)
- 시간 : 평일 레슨(화~금), 주말 레슨(토)
- 장소 : Monterey Park Golf Club (LA한인타운에서 차로 15분 거리)

- 골프 선수를 꿈꾸는 꿈나무, 대학진학 전문상담
- PGA 투어 출신 프로가 체계적인 스윙 교정, 슛 게임, 필드 레슨까지



Robert Sul
University of Las Vegas Golf Team's
2 Times 백상배 챔피언
2009 KPGA TOUR
AJGA all-American
Golf Digest Top Ten Amateur



T:(310)749-2522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볼티슈
 주일예배
 교회학교
 마그네틱 메모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문의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회비 : 월 \$10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이동희 원장



리프팅/ 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 리프팅 라인 ★ 부분 지방분해 S라인
 [4회 \$999] [8회 \$999]

탈모 치질 갑상선 당뇨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7~25lbs

손가락 발가락 마디관절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만성두통, 양쪽 어깨 통증, 뒷목 땀기고 귀울림(이명),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메스거리고, 꿈이 많고 깊은 잠을 못 자고, 한쪽 얼굴이 감각이 없거나 눈과 입 주위에 경련, 손과 팔이 저릿저릿하고 시큰거리는 마비증, 턱관절 장애 T.M.J.”

교통사고 전문병원

배빼는 숙변제거약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한의원
영선한의원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토 10시 ~ 2시
Tel. 213 380 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드모어)

코로나19 사태에 관한 신학적·목회적 고찰(1)

[특별기고] 목사아카데미 대표 신호섭 목사



지난 8일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사랑의교회

중국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Covid 19)가 대한민국에 상륙한지 어느덧 2달이 흘러가고 있다. 정부와 질병관리본부의 방역 노력으로 전염병이 예방되는 듯 하였으나 31번 확진자를 통해 집단 감염과 지역사회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신천지의 집단 감염을 통해 대구 경북 지역이 직격탄을 맞았고 전염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의 먹구름까지 이 나라를 뒤덮고 있다.

이에 대구 경북 지역의 교회들을 중심으로 주일예배를 인터넷과 가정예배로 대체하는 선제적 조치가 취해졌고, 이어서 각 교단 총회차원의 대응 지침과 신학대학원 교수회와 신학위원회의 성명서들이 이어졌다.

대구 경북 지역 이외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몇몇 대형교회들이 주일예배를 취소하는 일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그러나 이런 현상에 대해 주일예배를 취소하고 인터넷으로 대체하는 일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필자는 전혀 없는 바이러스 사태로 혼란에 빠진 국민들이 조속히 안정을 찾고 방역의 일선에서 땀 흘리며 전염을 막으려는 모든 의료진들과 어려움을 당한 한국교회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 교회들을 응원하면서 몇 가지의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주일 공적 예배

필자가 알기로 가장 빨리 코로나19 대응지침을 낸 장로교단은 고신이다. 이어서 합동, 합신, 통합, 백석 등의 성명서들이 이어졌다. 각 교단들은 앞서 발표한 성명서를 참조하여 각 교단의 상황에 맞게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성명서들의 내용과 어조는 강조

점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동소이하다. 주일 공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마땅하나 국가적 재난 상황 때 가정예배나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을 고려하라는 것이다.

주일예배에 있어 강조되어야 할 내용은 크게 3가지이다. 그것은 주일예배가 공적 예배라는 점과 공동회집 그리고 장소성에 있다.

확실히 안식일로서의 주일은 다른 날과는 구별된 날이고,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할 날이다(출 20:8). 주일은 주중 하루의 전체를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히 지키는 날이다. 이것은 적절한 정도의 시간을 따로 구별하는 자연의 법칙과도 모순되지 않는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7항). 개혁교회들과 정교도들은 주일성수를 강조해 왔다.

둘째, 주일예배는 공동회집의 예배이다(예배지침 2장 4조). 주일예배는 사적 예배나 개인 예배가 아니다.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모이는 공적 집회의 예배이다. 모든 신자는 이 예배를 경솔하게나 고의로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국가적 비상상황과 공예배에 대한 신학적 목회적 성찰 2,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 227).

셋째는 장소의 문제이다. 공동회집 예배는 반드시 장소가 관계돼 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장소에 따라 더 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신약의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서의 예배이기 때문이다(요 4:24).

그럼에도 하나님은 공적 예배의 모임을 명하신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6항). 그리고 이것은 모순되지 않는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안식의 날인 주일에 제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교회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께 공적으로 기도하고 가난

한 사람들을 구제하기를 명하십니다”라고 답한다(103문답).

시인은 “여호와와 집에 올라가자”라고 말한다(시 122:1). 초기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행 2:42).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독려한다(히 10:25).

흑사병이 창궐하던 16세기 당시 칼빈과 베자를 포함한 제네바 목사회 목사들은 주일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으며, 흑사병이 무서워 도망치는 교인들을 비난하지 않았다. 그러나 흑사병이 무서워 맡은 양떼들을 버리고 도망친 목사들은 면직시켰다.

또한 노출된 환자들은 즉시 병원으로 격리하였으며, 병원에 목사를 파송하여 죽어가는 환자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전국 소망으로 위로했다. 그러다가 몇몇 목사는 흑사병에 감염되어 하나님 품에 안겼다(스캇 마네지, 칼빈의 제네바 목사회의 활동과 역사, pp. 527-536).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안식일 정신이 살아있는 주일 공예배의 독특성과 중요성이다. 합신 총회신학연구위원회는 “회집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해지는 재난의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전염병의 상황을 반영하여 적은 수의 성도와 함께 공예배를 유지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말한다(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공예배의 신학적, 목회적 제언/ 합신 총회신학연구위원회 2., 228).

신앙생활에 있어서 공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스도인들은 공예배를 개인예배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라이언 M. 맥그로우, 예배의 날, p. 167).

2. 불가피한 상황과 부득이한 일

하지만 2월 23일에 감염병에 대한 국가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었다. 이 주간을 전후해 교회들마다 인터넷이나 영상 예배로 대체하는 상황들이 벌어졌다. 이런 상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불가피한 상황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해야 한다.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의 인터넷 또는 영상 예배와 같은 비상적 조치를 굳이 성경적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

만일 인터넷 영상 예배가 성경적이라면, 한국교회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영상 예배를 성경적이라고 주장했어야 한다. 인터넷이나 영상 설교나 유튜브 등은 교회 홍보나 전도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었지, 주일 공예배를 대체하는 목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

따라서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영상 예배를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인터넷 영상 예배는 비인격성, 성례의 부재, 헌상의 의미 약화 등등의 수많은 결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영상이나 예배문으로 예배하는 것은 본래 공예배의 원리와 목적에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합신총회 신학위원회, 228).

그러므로 예외는 예외이다. 예외를 일반이라 말해서는 안 된다. 소 요리문답은 “안식일을 ...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은 예외로 합니다”라고 쓰고 있다(60문답). 대요리문답도 “부득이한 일과 자선 사업에 쓰는 일을 제외하고”(117문 답)라고 했다.

부득이한 일은 피할 수 없는 일, 다른 날로 연기할 수 없는 일, 집에 화재가 발생했거나, 응급환자가 발생했거나 강도가 들었다면 그 일을 먼저 처리하는 것 등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이 과연 불가피하고 부득이한 일인가? 일반적으로 확실히 작금의 상황은 비상적이다. 그러나 이런 비상적이고 심각한 상황조차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 모든 지역의 상황이 동일하게 일반적이지 않고, 모든 교회의 상황이 동일하게 일반적이지 않다. 따라서 그 대처와 조치 역시 각각 달라야 한다.

3. 대구 경북의 특수적 상황

3월 6일(0시 기준) 현재까지 총 확진자 수인 6,284명의 90.2%가 대

구 경북에서 발생했다. 그 가운데 74.6%가 대구이다. 이런 경우는 불가피한 국가적 재난의 상황이다. 정부도 대구와 경산을 국가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다.

총회 지침이 있기도 전에 당회의 깊은 고민 가운데 내려진 결의에 따라 대구 경북의 교회들이 취한 조치는 합리적으로 보인다. 감염이 전 방위적으로 확산되었고 하루가 다르게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고신 총회의 3차 대응지침에서도 밝혔듯이 이런 조치들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나 지역사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교회에서는 교회와 성도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의 코로나19 제3차 대응 지침 안 내). 이런 조치는 십계명 가운데 제6계명의 정신과도 일치한다.

하지만 대구 경북의 특수 상황이 모든 지역과 동일하지는 않다. 따라서 대구 경북 교회의 비상한 조치들이 모든 교회들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지역에서의 확진자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고 또한 교회에 확진자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두려움에 휩싸여 먼저 주일 공예배를 취소하거나 영상 예배로 대체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이다.

심지어 확진자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확진자가 교회 내부에서 감염된 것인지 외부에서 감염된 사실이 추후에 밝혀진 것인지까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추후 결과에 따라 자가 격리를 실시하고 예배당 방역 조치를 마치고 다시 공 예배를 드리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누리교회, 새문안교회, 사랑의교회, 주안장로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등이 주일예배를 취소했다. 특히 여의도순복음교회는 3월 한 달을 온라인 예배로 대체한다. 이런 현상들은 초대형교회에서 보다 더 두드러진다.(계속)



신호섭 목사
울곧은교회
목사아카데미 대표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 up \$20 up

단, 칼라만 하시면 \$40

매직스트레이트

\$12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입니다.

WELLA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 칼라 작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히스기야왕의 기도와 응답

열왕기하 20:1-7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허점이 많습니다. 그 허점이 어디서 생기는 것인지 히스기야의 생애를 통하여 깨닫고,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은혜보장으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하스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히스기야의 어머니는 미신, 우상 섬기는 것을 좋아해서 아하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 문을 봉하게 하며 예루살렘 성전 구석구석마다 산당을 만들어 온갖 우상을 끌어들이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아하스 왕은 16년간 유다를 다스리면서도 치욕과 고통의 연속인 비참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역대 임금들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정치만 했기 때문입니다. 아하스는 앗수르와의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결국 전사하고 말았는데, 그의 시체마저도 왕들의 묘실에 장사 치루지 못하고 버려지는 하나님의 보응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하스가 16년간 정치를 잘못하는 과정에서 그의 가족들도 수난과 하나님의 채찍을 계속 맞아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공의로 우시고 상선벌악(賞善罰惡)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책을 펼쳐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가족들을 잘 보살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 시대에 수난 당했던 선지자들을 전국에서 모이도록 하고 레위족속들을 소집하고 성전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하여 깨끗하게 꾸미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한 일에 각자의 소임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하며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동안 섬겨왔던 미신, 우상을 서둘러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라는 특명을 내렸습니다.

열왕기하 18:4-6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뿔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이 16년 동안 정치적으로 잘못하여 하나님 앞에 얻어맞아 나라

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중 앗수르에게 많은 시달림을 당해 오면서 앗수르 왕 산헤립에게 종노릇해왔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신은 물론 온 민족이 서둘러 회복해야겠다는 정책을 펴면서도 그는 믿어지는 믿음이 없었기에 인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정치를 잘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는 주변 약소국가들과 동맹을 맺어 앗수르를 막아볼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보면 정치가로서 유능한 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유다 왕은 신앙 제일주의로 살아야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데 세상의 정책과 정략의 흥내를 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차례 충고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확신이 서있지 않았습니. 그래서 한편으론 믿는 것같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동맹한 국가 중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 그의 아비와 동침하여 낳은 자식들의 혈통입니다(창19:30-38). 하나님이 저주하신 이 나라를 히스기야왕은 깨닫는 지혜가 없어서 그들과 연합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자 했던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과 그 방법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런 믿음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책망했던 그대로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8:13-16에 “히스기야 왕 십사년에 앗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앗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앗수르 왕이 곧은 삼백 달란트와 금 삼십 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와 전과 왕궁 공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 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와 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앗수르 왕에게 주었더라”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한 히스기야 왕에게 확실한 경험을 통한 교훈을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히스기야 왕이 회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앗수르가 요구한대로 다 주었는데도 유다를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을 내어 놓으라고 합니다. 이제는 히스기야의 어떠한 지략과 수단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처럼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

습니다. 비로소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열왕기하 19:15-19를 보면 “그릇들의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에 홀로 하나님이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신 하나님을 훼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앗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십시오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와는 홀로 하나님인줄 알리이다”며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히스기야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전하게 하고 앗수르 왕 산헤립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과 그 군대를 내일 밤까지 완전히 전멸시킬 것이니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유다를 다스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와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에서 군사 십팔만 오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왕하15:35)”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최고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만했던 것들이 어리석었던 일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 의지하는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다급한 상황에서라도 가장 안전한 구원을 보장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앗수르가 멸망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오던 히스기야는 작은 종처가 커지면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와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고 사형선고를 내립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앗수르의 침공 때 자신이 드린 기도의 응답을 기억했습니다. 이사야가 사형선고를 전하고 돌아간 후에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정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가 예루살렘을 벗어나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낮게 하리니 내가 삼 일만에 여호와와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십오 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므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처가 온전히 나음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삼 일만에 여호와와 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새로운 믿음으로 발돋움하게 하는 신앙 발전의 역사를 섭리하셨습니다.

만약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하게 된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믿음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겪은 쓰라린 경험이 오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경험이라면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전적으로 회개했던 히스기야의 온전한 믿음과 그의 기도응답의 발전이라는 체험이 여러분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지길 축원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40 라디오 코리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AM1310 기쁜소리방송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미국 신문 설교		인터넷 설교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Since 1996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
www.cmmlogos.org

캘리포니아주 의료보험 의무화 및 미가입 벌금에 대비하세요!

캘리포니아 주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전 주민 의료보험 의무가입과 미가입 벌금제도를 재시행합니다. 의료비 대책과 벌금 면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CMM 기독교의료상조회에 문의하세요!

CMM 기독교의료상조회는?

-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나눔 사업
- 1996년부터 24년간 미 전 지역의 한인 크리스천들이 참여
- 월 \$175로 의사방문, 검사, 입원, 수술은 물론 건강검진까지 지원
- 낮은 본인 부담금 (골드플러스 프로그램 1년에 \$500)
- 2년 이상 가입 회원 사망시, 최대 \$17,500까지 장례비 지원
- 미국 내 의사, 병원 제한 없고, 한국은 물론 전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 완벽한 한국어 서비스

프로그램	Gold Plus	Gold	Silver	Bronze
1인	\$175	\$135	\$ 80	\$ 40
2인	\$325	\$260	\$160	\$ 80
3인	\$425	\$385	\$240	\$120
본인부담금(1인당)	\$500/Year	\$500/Incident	\$1,000/Incident	\$5,000/Incident
지원금/질병당	\$150,000	\$150,000	\$150,000	\$150,000
지원내용	의사비, 검사비, 치료비, 6개월 처방약, 응급실, 입원, 수술, 임산부산 건강검진(\$600/1년)	의사비, 검사비, 치료비, 6개월 처방약, 응급실, 입원, 수술	입원, 수술	입원, 수술

* 기독교의료상조회는 의료보험 회사가 아니라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나눔 사업 기관입니다.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Since 1996
Operated by Logos Missions, Inc.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CMM CA 지부 애너하임
이사라 ☎ 213-318-0020
김희자 ☎ 562-584-8880
* 홈페이지 www.cmmlogos.org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및 회원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Phone: 773-777-8889 (Headquarters)
714-333-7487 (CA 지부)
Email: ca@cmmlogos.org

캘리포니아 지역 CMM 설명회 안내

비싼 의료비 부담으로 고민 중인 한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주 2회(화, 금) LA와 Anaheim에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개인이나 단체는 사전 예약 바랍니다.

213-318-0020 (이사라)
hyenulee@christianmutual.org

신학대학교

신학과(B.A) | 126학점

신학대학원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NYTS)

본교 지원시 특전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과정이나 교역학 석사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개강일자: 3월 19일

입학상담 : 213-272-6031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월 일 개강

등록상담전화

**CBD Hemp Oil 제품으로
대한민국 식약청 최초 수입승인 제품**

THC Free
환각기능 없음

Dietary Supplement

햄프햄초환

대마추출 건강기능식품 SUPERFOOD PROMISE

햄프햄초환은 예고없이 오는 혈관 질환, 뇌졸중, 심장병,
치매예방, 신경정신질환, 면역질환, 뇌전증에 탁월한 건강식품!
당뇨 탈출, 숙변제거의 특효!

신이 내린 항암식물!

혈관 청소!
치매 예방

암 전이 예방!
당뇨 탈출

면역력 증강!
숙변 제거



2달분
1,800 환
\$250 +Tax

MANUFACTURED IN THE USA

Cannabinoids 대마추출물 Hemp CBD Oil

많은 질병에 사용되는 유명한 자연치료제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칸나비노이드를 자극해 염증을 줄여주어 암, 뇌전증 치료와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GLA는 **미국암협회가 강력 추천하는 항암 식품입니다.** 대마식물에서 추출된 CBD는 중독성이 없으며 환각성을 유발하는 THC성분이 없습니다. 만성통증, 불안증 등 다양한 질병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연구결과로 건강과 웰빙세계에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햄초는 어디에 좋은가요?

- 1 높은 영양소의 보고**
90여 가지의 바닷물 속 좋은 미네랄 성분이 그대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채소를 통해서는 섭취가 어려운 요오드는 일일권장 섭취량의 약 8배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 2 장에 좋다**
햄초는 장운동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어 변비를 해소하고 장내에 쌓인 숙변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더불어 장내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능도 있어 꾸준히 섭취하면 전반적인 장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3 심혈관에 좋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주고, 혈액과 혈관의 지방질을 배출해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 4 당뇨에 좋다**
햄초는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억제해주며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 당뇨를 예방하고 증상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5 간에 좋다**
햄초에 들어있는 콜린은 지방간이나 간경변 등과 같은 간질환을 예방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테인 성분이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줍니다.
- 6 항암에 좋다**
햄초에 풍부한 게르마늄은 항암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통해 햄초가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을 예방하는데 크게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보고 되었습니다.
- 7 식이섬유가 많다**
햄초 100에는 약 7~8g의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시금치의 10배에 달하는 양이다. 충분한 식이섬유 섭취는 혈당조절과 체중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콜린 성분이 장내 중성지방을 수용성 지방으로 바꾸어 체외로 배출시켜줍니다.
- 8 칼슘이 많다**
햄초에는 100g 당 칼슘 235mg, 칼륨 650mg, 철분 40mg 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 갱년기 여성과 노인들의 골다공증 예방, 전반적인 뼈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그 밖에도 항산화, 피부미용, 두뇌 활동 촉진 등이 있으며, 일본 오히라산장 난치병연구소 이토 소장 보고서 '놀라운 햄초의 효능' 에 항염증, 항균, 감작성 기능 증진, 기관지 건강 개선, 근육통 완화 등의 효능이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Low Sodium Salt 天然 低鹽

BAJA SEA SALT

코셔미네랄 천일염

99.70% 미네랄 소금
최상급 천일염

청정지역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만든 친환경 천일염으로 최고의 품질과 Kosher(코셔) 인증을 획득하여 미국과 유럽이 인정한 제품입니다.

바하천일염 4대 미네랄	일반 가공소금이 문제!
나트륨 Na : Cl	(정제염 - 황소금, 맛소금)
칼륨 K : Cl	나트륨 (Na)
칼슘 Ca : Cl	의사들이 소금을 먹지 말라는 이유는 나트륨만 들어있는 소금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그네슘 Mg : Cl	

중금속 간수

515g
\$30 +Tax

바다의 산삼!

BAJA GLASSWORT POWDER

바하햄초분말

청정지역!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햄초! 바하햄초분말로 가족의 건강을 챙기세요!

풍부한 식이섬유
아미노산, 무기질
해양미네랄 함유!!!

150g
\$30 +Tax

(213)386-3896
바하천일염, 바하햄초분말 도.소매 판매합니다.

이음헵프카페
전시판매장

중앙일보

120세 시대에 건강 동반자

1달분
\$170

목회자
50%
할인

Dietary Supplement
HEMP PLUS+

2 TIMES A DAY (15 PILLS)
TOTAL (900 PILLS)

CBD는 신경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신경발생 즉 신경계 조직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CBD가 악화되는 알츠하이머 병의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TheHempPlus.com
hempplusorder@gmail.com

올가늌 건강기능식품

알츠하이머·파킨슨·각종 암 예방 포물라

햄프플러스

알츠하이머 병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의 침착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CBD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 항산화, 항염증 그리고 신경보호 및 재생촉진 효과를 보여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늦출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CBD는 뇌의 수용체에 작용하여 정신 질환 및 신경계 치료에 다양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킨슨 병에는 체내 도파민 합성화 손상의 감소, 신경보호, 정신병적 동급향상과 환자의 악몽, 공격적 행동 감소의 효능이 있다.

커큐민(Curcumin)추가로 치매의 큰 원인중 하나인 아밀로이드를 분해하는 효과가 있으며 도파민 및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증가시켜 준다.

TheHempPlus.com
RopheCentum, Inc.

세계 보건기구(WHO)가 밝힌 알츠하이머, 파킨슨 병, 각종 암 예방에 효과적인 CBD를 햄프플러스로 경험하세요